국제유가 하락세 … Dubai유 18.52달러

2월20일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2002년 2/4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20일 현지에서 거래된 Dubai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0.22달러 하락한 배럴당 18.52달러를 기록했다. 또 북해산 Brent유는 0.35달러 떨어진 19.75달러,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64달러 하락한 20.14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002년 3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배럴당 59센트(2.8%) 하락한 20.29달러로 마감됐으며, 런던 국제석유시장에서 북해산 Brent유 4월 인도분이 66센트 떨어진 19.86달러를 기록해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러시아 정부와 석유회사들간의 회담에서 정부의 석유 수출 제한안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 2월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3%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은 미하일 카스야노프 총리와의 회동에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루 15만배럴 수출 감산을 2/4분기까지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량 1위, 2위인 AO유코스와 OAO루코일 등은 일제히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OPEC의 시장점유율이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OPEC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시장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현재의 하루 15만배럴 감산을 2/4분기까지 연장하는데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석유협회(API)가 발표한 석유 재고는 150만배럴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450만배럴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월21일 시장에서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22>